

Carbamazepine에 의한 급성 간질성 신염 1예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류봉관, 정지용, 김범윤, 신병철, 김현리, 정종훈

급성 간질성 신염은 약물과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며, 약물에 의한 급성 간질성 신염은 일종의 과민반응으로 용량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증상은 약물 복용 후 수일에서 수주 사이에 발생하여 투약을 중지하면 대부분에서 자발적인 호전을 보이나, 중증의 신부전이 지속될 경우 부신 피질 호르몬 투여로 회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Carbamazepine은 항전간제로서 이로 인한 급성 간질성 신염의 발생은 드문 경우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carbamazepine 복용 후 발생한 박리성 피부발진과 급성 신부전증으로 내원한 환자에서 신장 조직 검사상 급성 간질성 신염으로 진단되어 약물 중단,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후 증상이 완화된 경우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49세 남자환자로 요량의 감소와 피부 발진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 약 6개월전 Rt. hemiparesis로 ICH 진단하에 대증적 요법으로 치료해오던 중 내원 2개월 전부터 Rt. lower extremity에 tingling sensation 발생하여 carbamazepine 복용해오던 중 내원 10일 전부터 erythematous skin lesion과 요량이 감소하여 내원하였다. 환자는 내원시 혈압 120/80mmHg, 피부소견상 전신에 박리성 피부 발진이 관찰되었고, 혈액검사상 Hb 12.6g/dL, WBC 23200/mm³, BUN/Cr 39.7/4.40 mg/dL, 소변검사상 Protein 3+, Blood 2+ 보였으며, 고배율 검경하에서 호산구가 검출되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양측 신장 크기의 증가, 신 피질의 음영 증가, RI index가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보였다. 신장 조직 검사상 간질내에 임파구로 구성된 염증세포의 침윤 및 섬유화와 국소적인 tubular necrosis가 관찰되었다. 계속적으로 BUN/Cr 97.8/8.24 mg/dL까지 상승소견보여 carbamazepine 투여 중지와 함께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후 7일째부터 피부발진이 소실되고 신기능의 호전을 보였으며 치료 14일이 지나면서 신 기능의 완전한 회복을 보여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